

2001. 4. 18 제4호

WFFIS Daily

제3회 서울여성영화제

WFFIS Daily

- 1 섹시한 느낌
- 2 WFFIS News
아네스 바르다 포럼
새로운 여성 영화를 향한 끝없는 도전
4. 감독과의 대화
윤은정, 김명진, 이주영
황위산
5. 컬럼
먼 길/김재의
6. 관객 인터뷰
7. English Edition



■오늘의 영화

동숭아트센터 동숭홀

- 1회(11:00) <사망통지서>
- 2회(1:30) <제트부인>
- 3회(4:00) <세레나데>
- 4회(18:30) <섹시한 느낌>/<조이>/<서브로사>
- 5회(21:20) <내가 여자가 된 날>

하이퍼텍 나다

- 4회(18:30) <세상끝에서>/<50년 간의 침묵>
- 5회(21:20) 아시아 단편경선 3 : <달이 지고 비가 옵니다>/<알 수 있다>/<상식>/<싸이코 드라마>/<Deshabille-toi라는 이름의 비디오테이프>/<동등>

■오늘의 이벤트

하이퍼텍 나다

10:00 - 17:00 국제포럼
“아시아에서 여성이 영화를 만든다는 것”

필라댄스 3층

오후 7:00 여성영화인의 밤

★ 상영 후 감독과의 대화 있습니다.

※ 일정은 주최측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섹시한 느낌 feeling sexy

호주/ 다비다 알렌 감독/ 1998/ 50분/ 35mm/ 컬러

미대생 비키는 열정적인 여자다. 그런 그녀가 결혼한 의대생 그렉은 수줍은 남자. 결혼하고 아이를 둘이나 낳고, 집안일을 하고, 그런데 계속 가슴 한 구석이 허하다. 이게 아닌데, 내가 꿈꾸던 결혼생활은 이게 아닌데. 그날이 그날 같은 날들을 참지 못한 비키는 결국 사고를 친다. 미대생 휴고와 나는 열정적 사랑이 문제. 그러나 아직 남편을 사랑한다. 결국 남편에게 외도를 고백하고 다시는 바람을 피지 않겠다고 다짐 또 다짐하지만? 또 나타났다. 멋진 남자와 가슴 두근두근 이상 증세.

이 영화로 데뷔한 다비다 알렌(Davida Allen) 감독은 본래 화가다. 국적은 호주. 9년이나 걸려 이 영화를 완성했다. 영화속 비키는 감독의 분신? 혹은 대변인? 화가답게 그녀의 영화는 색감이 풍부하다. 거기다 넘치고 넘치는 재기 발랄함, 상상력 그리고 유머. 감독은 묻는다. 열정적인 사랑과 결혼은 동거 불가능? (말도 안돼!)



아네스 바르다 포럼

여성주의 미학의 가능성을 찾아라

프랑스 누벨바그의 어머니로 불리며 40여 년 동안 영화를 만들어온 아네스 바르다. '바르다의 영화세계와 여성주의 미학의 가능성'이란 주제 아래 '프랑스 특별전 : 아네스 바르다 포럼'이 지난 17일(화) 오후 7시 필라덴스 4층에서 열렸다. 객석을 가득 메운 인파와 열기 속에서 여성문화이론 연구소 소장인 고갑희 씨 사회로 열린 포럼엔 소설가이자 서강대 교수인 최윤 씨, 영화평론가이자 동국대 교수인 유지나 씨의 애정 어린 발제 후 임옥희(경희대 영문과 교수) 씨와 주유신 씨(중앙대 강사, 여성영화인모임 이사)가 열띤 토론을 벌였다. 바르다의 "(발제, 토론자들을 가리키며) 꼭 시험관 앞에 선 학생 같다"는 유머러스한 인사 후 이어진 포럼은 시종 일관 화기애애. 여성주의 미학의 가능성처럼 밝았다. 다음은 발제 내용.

여성담론으로서의 영화 글쓰기 : 아네스 바르다의 영화탐험 발제자 : 유지나 (영화평론가, 동국대 교수)

영화를 통해 세상모기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카메라 시선이 달라지는 것, 카메라 뒤와 앞에 놓인 주체가 달라진다면 이런 변화는 놀라운 일이 아니다. 바로 그 변화의 지점에 아네스 바르다의 영화가 있다.

바르다가 파리 14구 다게르가에 관한 다큐멘터리 <Daguerreotypes>(침묵의 '씨네-오페라'로 불리기도 했던 작품)를 찍던 무렵, 바르다는 카메라가 담아내는 삶의 모습이 세상 풍속보다 빨리 변해야한다는 점을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영화는 세상의 풍속보다 앞서가야 한다. 여성은 자신의 재현을 변형시킴으로써 자신의 미래를 발명해야 한다.(1974)"

1956년부터 최근까지 30여 편의 영화를 지속적으로 만들어온 바르다는 영화작업과 전천후적 영화작가(연출, 시나리오, 배우, 편집, 작곡 등)로서 여성영화의 전설적인 존재다. 바르다는 늘 영감에 찬 자기 혁신적인 양식으로 새로운 스타일의 영화를 제작함으로써 대안영화의 모범을 보였다.

패트리샤 이렌스가 제안한 여성주의 미학의 세 가지 유형인 반영, 혁명, 제의로서의 여성영화를 받아들인다면, 바르다야말로 제의적인 영화양식을 여성 리얼리티로 개척해낸 씨네아티스트다.

카메라 뒤의 여성시선과 카메라 앞에 놓인 삶의 리얼리티, 특히 여성존재의 실존적 리얼리티를 집요하게 파고드는 과정 속에서 기존의 영화관습이 축적해온 재현의 관습은 파괴된다. 그 빈자리를 메우는 것은 바르다의 자유로운 카메라다. 그 속에 삶의 무게를 감당해나가며 파고와는 다르게, 남성들이 욕망하는 바와는 다르게 꿈꾸고 생각하고 느끼고 산책하고 일상을 살아내는 여성들의 리얼리티들이 꿈틀거린다.

여성주의 예술 미학의 가능성 발제자 : 최윤 (소설가, 서강대 교수)

여성주의의 예술적 가능성에 대해 얘기하고 싶다. '사적인 것이 정치적이다'라는 과거 페미니스트의 언급을 패러디해, '모든 예술적인 표현은 정치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모든 표현의 갈고리에 주체의 가치관이 미세한 스펙트럼을 만들며 스며들어있기 때문이다.

소설가, 관객으로서 나는 아네스 바르다의 영화에서 주류적인 영상문법과 이념에 도전한 흔적을 도처에서 본다. 이것은 바르다 영화의 주제인 '여성성의 다양한 접근'에서 뿐만 아니라 현실에 대한 접근방법에서 근본적으로 여성주의적인 미학의 형상화다. 그것을 나는 주체, 내면, 언어 이전, 표상너머를 드러내는 구체성의 미학과 극단의 미학으로 부르고자 한다. 이는 <오페라 무페 거리>, <행복>, <방랑자> 등의 작품에서 표출된다. 이 두 미학의 공존이 기존의 세계관과 그에서 배태된 미학을 내부에서부터 전복한다. <조은미>

꿈을 찍고 싶은 사람들 / 주몽 재할원 꿈샘 동아리 회원들

16일 <누슈:여성의 언어>, <역사수업>의 매진사례와 <걸파이트>에 많은 관심이 집중된데 이어 3일째를 맞은 17일 역시 <가이아 걸즈>가 매진되었고, <방랑자>, <역사와 기억>, <금류 속의 요정>, <기억과 시간>이 뜨거운 호응 속에서 상영되었다. 친구끼리, 연인끼리, 때로는 단체관람까지 많은 관객들이 여성영화제를 찾고 있다.

따뜻하다는 말보다는 차라리 덥다는 말이 맞는 아주 화창한 오후, 아주 특별한 관객들을 상영관에서 만날 수 있었다. 주몽 재할원 꿈샘 동아리의 9명의 원생들과 2명의 조력사, 2명의 자원봉사자가 이들이다.

꿈샘은 영화를 만드는 동아리다. 꿈샘 동아리가 영화와 인연을 맺게 된 데는 보건복지부 6대 지원사업의 하나인 동아리 후원 사업에 뽑혀서이다.

"앞으로 뮤직 비디오와 재할원 소개 비디오를 만들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영화와 영화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 인터넷에서 여성영화제가 열린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원생들과 함께 여성영화제를 찾은 조스미 조력사의 이야기.

3회 <역사와 기억>, <금류 속의 요정>, <기억과 시간> 상영시간(16:00)보다 1시간 가량 앞서 상영관을 찾은 이들은 여러 가지 영화제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있었다. 이들이 정말 특별한 이유는 장애인이어서가 아니라 영화를 찍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꿈을 찍고 싶어하기 때문에 이들은 영화제를 찾은 어떤 관객보다도 특별하다. 이번 여성영화제가 이들에게 작은 도움이나마 되었으면 한다. 이들 뿐만 아니라 여성영화제를 찾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의 선물 하나씩은 가져가기를 바란다. <김은주>

